

## 제44회 세계예수교장로회 총회, 정우용 목사 총회장 선출

세계예수교장로회(WKPC)는 지난 2일, 제44회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총회장으로 정우용 목사(매릴랜드 예일교회, 워싱턴노회)를 선출했다.

또 목사 부총회장으로 나정기 목사(이레교회, 미주서부노회), 장로부총회장으로 정진식 장로(나성열린문교회, 가주노회), 서기로 서보천 목사(돌로스교회, 가주노회), 부서기로 이재광 목사(크로스선교장로교회, 동남부노회), 회록서기로 김성길 목사(커네티컷주사랑교회, 뉴욕노회), 부회록서기로 송영일 목사(휴스턴새생명교회, 중남부노회), 회계로 김춘경 장로(나성열린문교회, 가주노회) 부회계로 김원석 장로(필라서머나교회, 뉴욕노회)를 선출했다.

신임 총회장 정우용牧사는 코로

나 바이러스 사태와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으로 위기 상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김 것"이라며 "본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도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표명하며, 세계 선교와 이민사회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초 워싱턴D.C. 매릴랜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총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목사 총대 264명, 장로 총대 71명 등 총 335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영어 노회 가입 청원, 서울노회 가입 청원, 총무 선임 등 긴급 안건을 제외한 기타 안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속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고 정회했으며, 신임 총무로는 옥영철 목사(커네티컷 페이필드한인교회, 뉴욕노



세계예수교장로회(WKPC) 제44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정우용 목사

회)를 선출했다.

한편 WKPC는 "총회 산하 26개 노회가 있으며, 회원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 뿌리를 두

고 개혁 신학에 입각해 전세계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회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본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의 형제교단으로서 교류하고 있으며, 본 총회 산하의 총회세계선교회(WMS)는 본국 총회세계선교회 GMS와 세계 선교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WKPC)를 중심으로 하여 미주 서부노회와 미주동부노회가 조직되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정회원인 되어서 본국 총회에 총 대를 파송하고 있다"며 "특히 본 총회 직영신학교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인준신학교인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RUS는 미국 연방정부 대학인준위원회 ABHE (Association of Biblical Higher Education) 인가를 받고 정식학위를 수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 팀 켈러 목사, 췌장암 진단...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

미국의 팀 켈러 목사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며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네 가지 제묵으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뉴욕 리디머장로교회 은퇴목사인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3주 전까지 앞에 걸렸다는 사실을 몰랐다. 췌장암 항암 화학 요법 치료를 시작하기 전 추가 테스트를 위해 국립보건원 국립 암 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로 향하고 있다”고 글을 남겼다.

팀 켈러 목사는 지난 2002년 갑상선암으로 투병한 바 있다. 그는 “기분은 좋고 증상은 없다. 의료진은 ‘우연한 발견’이라고 부른다”며 “훌륭한 의료진이 저를 돌봐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

한 의사’(Great Physician)께서 저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충격과 두려움의 시간을 가졌지만 지난 몇 주 간 여러 가지 테스트, 생체검사, 수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는 그와 가족을 위해 네 가지 기도제목을 요청했다.

첫번째는 하나님께서 의학적 수단이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암을 치료하시고 점차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두번째 기도제목은 그와 사모가 이 세상의 기쁨에서 멀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원하기 위해 이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번째는 가족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네번째 기도제목은 치료 과정 중 부작용이 있더라도 글쓰기와 강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팀 켈러 목사는 히브리서 12장 1~2절(“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을 언급하면서 “예수께서



팀 켈러 목사 ©A, Larry Ross Communications

저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것 처럼 기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 임하겠다”고 글을 남겼다.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굿네이버스 USA,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빈곤아동 위한 모금 실시

코로나19 복미와 유럽 넘어 중남미 및 아프리카로 확산 추세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30만명 사망 전망  
아프리카 및 중남미, 동남아시아 사업국에서 코로나19 대처 시작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 kr.goodneighbors.us)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와 WHO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선언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한 저개발 국가를 위한 긴급구호 대응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현재 대부분 굿네이버스 해외사업국 또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내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국가와 취약 계층의 아이들은 코로나19 감염의 불안감 속에서도 위생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에도 진단키트 부족으로 인해 즉각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이동제한 명령과 휴교령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가정들은 당장의 생계 유지도 힘든 상황이다.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는 COVID-19 In Africa 보고서에서 아프리카에서는 최소 3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900만명이 극빈층으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 하였고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12억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이 감염되고 330만명이 올해 사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굿네이버스는 해외 사업국 지역 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지 정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긴급 대응하고 있다.

아프리카 차드는 손 세정제, 비누



국제 구호 단체 굿네이버스 USA

등으로 구성된 개인위생 키트를 지원하고 가나의 경우는 긴급 생계 및 위생 키트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굿네이버스 과테말라 지부는 지역주민 및 아동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파

소를 중심으로 의료진 감염예방 및 의료 활동에 필요한 의료, 방호 용품, 면역력이 낮은 취약계층 아동 및 지역 주민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마스크,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한 간이 세면대, 위생 용품과 위생 시설이 부족한 지역 아동을 위한 개인 위생 키트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격리된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에게는 생필품 및 식료품 및 긴급 생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더 나아가 지역 내 아동 및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위생 교육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업이 중단된 아동을 위한 원격 및 대안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후원금 체크 보낼 곳:** Pay to Good Neighbors, P.O. Box 6086 Orange, CA 92863

**Venmo:** @goodneighbors

**회원문의:** 877-499-9898

## 낮은울타리, 코로나 시대 ZOOM으로 만나는 자녀교육 세미나 시즌 2 연다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 조희창 목사)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를 세워가기 원하는 부모, 사역자들을 위한 <Zoom으로 만나는 자녀교육 세미나-시즌2>를 연다.

시즌2는 뜨거운 반응 가운데 끝난 시즌1과 다른 네 개의 강의로 구성된 과정이다. 화상 애플로 열기에 미주 전 지역은 물론 선교지와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는 어느 지역에서나 참여할 수 있다. 일시는 6월 9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미주 동부시간)이다.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Session 1. 다음 세대 부흥과 그리스도의 편지

Session 2. 5 Jesus Power를 가진 자녀로 키우기 -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Session 3. 성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변증

Session 4. 영화 읽기 - 영화로 자녀들과 소통하기

강사로는 미디어 교육과 다음 세대 사역을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22년간

**“시즌 2”**

**ZOOM으로 만나는 자녀교육 세미나**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

6월 9일~6월30일 매주 화요일 EST 10:00~11:30AM (4주간)

Session 1. 다음세대 부흥과 그리스도의 편지  
Session 2. 5 Jesus Power를 가진 자녀로 키우기  
-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Session 3. 성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변증  
Session 4. 영화 읽기 - 영화로 자녀들과 소통하기

**낮은 울타리**

**SPEAKER**

**조희창 목사**

- 낮은울타리 미주본부 대표강사
- 한류대학교 교육목사
- 서강대 연세대학교 미디어교육전문
- Gordon Conwell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 FEBC 극동방송 <그리스 전통회임>
- CGN TV <교육칼라> 방송
- CTS TV <글로벌선명애> 방송

**방법:** 각 가정에서 화상 앱 ZOOM

**회비:** \$40

Zelle: woollartus@gmail.com  
PayPal: paypal.me/woollartus  
Venmo: woollartus

**주최 및 문의:** 낮은울타리 미주본부 646-300-4790

건강한 자녀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사역과 강의를 해온 낮은 울타리 미주본부 대표 조희창 목사가 섬기게 된다. 조 목사는 FEBC 극동방송 <그리스찬 문화 읽기>, CGN TV <교육칼라>, CTS TV <글로벌 신앙에세이>에 출연했으며 현재 뉴저지 한무리교회 교육목사로 사역 중이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조희창 목사는 “시즌1 세미나를 섬기면서 미국 내 학부모와 사역자님들 외에 한 분의 성도님의 후원으로 열다섯 분의 남미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 성도님들이 참여

하셔서 화상 앱 Zoom으로 만나는 자녀교육 세미나를 통해 은혜를 나누 수 있어 기뻐다”며 “이번 세미나 시즌2와 더불어 앞으로 계속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지털과 아날로그 모두에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길 기대하고 기도한다”고 전했다.

세미나의 등록비는 \$40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를 후원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김동욱 기자

문의) 미주본부 646-300-4790

## “무료 치매 가족 돌봄 온라인 교육” 실시

소망 소사이터티  
화상세미나 진행

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열릴 교육의 주제는 “공감하는 대화: 새로운 이야기 방법”이며, COVID-19로 인한 대면교육의 어려움으로 화상세미나로 개최되고, 알츠하이머 오렌지카운티 협의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소망 소사이터티의 남궁수진 간사가 진행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인 또는 친구가 교육 대상이다.

화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은 없으나, 화상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안내를 받아야 하므로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6월 22일(월)까지 소망 소사이터티 본부(562-977-4580) 혹은 이메일(somang@somangociety.org)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의 가치를 가지고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망 소사이터티(유분자 이사장)에서는 “치매 가족 돌봄 교육”을 6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부터 1시간 동안 화상세미나로 진행한다.

‘치매가족 돌봄 교육’은 알츠하이머 오렌지카운티협회의 화와의 협력사업으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성격과 행동 변화: 왜, 어떻게 반응하는가?” “공감하는 대화: 새로운 이야기 방법”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을 주제로 시리즈로 진행되며 이 교육 시리즈를 통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인이 실제적인 도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ogos.org](http://www.cmm-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특허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 up \$20 up**

**매직 스트레이트 \$1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up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S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 오كل랜드 크리스천 교회 “실내 졸업식 된다면, 실내 예배도 가능해야”

태평양 법률협회 불평등한 알라메다 카운티 공중 보건국 상대로 소송 제기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오클랜드 크리스천 교회는 지난

달 28일 알라메다 카운티 공중 보건국의 교회 불평등 대우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시작  
했다.

카운티 보건 당국은 인가받은 학교는 실내에서 25명까지 졸업식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오클랜드 크리스천 교회 담임 목사인 토비 몽고메리(Tobey Montgomery) 목사는 카운티의 결정에 대하여 교회에서도 동일한 규칙을 이용해서 교회도 모일 수 있도록 서안을 보냈다. 왜냐하면 오클랜드 크리스천 교회에서 운영하는 부설학교인 패튼 아카데미 역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공식 인가받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몽고메리 박사는 “학생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이정표와 같은 일

반 졸업식을 카운티에서 허락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지역사회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또 다른 집회(예배)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교회는 카운티 보건당국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자 태평양 법률 협회 상임 변호사인 케빈 스나이더(Kevin Snider)를 통해 보건 당국의 책임자인 에리카 판(Erica Pan) 박사에게 지침에 따라 실내에서 졸업식을 거행할 것이며, 교회역시 같은 규칙에 따라 주일 예배를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보건당국 책임자인 에리카 판 박사는 서신을 통해 졸업식도 교회 예배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변

했다.

이에 태평양 법률협회 스나يدر 변호사는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닌 공무원들의 관료적 만행”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태평양 법률협회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알라메다 카운티 보건국의 불평등한 행동은 위헌뿐만 아니라 종교 집회 대 일반 집회에 대한 노골적 편협과 차별을 보여준다”며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은 아무런 토의 없이 일반적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오클랜드 크리스천 교회는 1944년 오클랜드시에 설립됐으며 하나님 교회 소속 교회다.

김동욱 기자

**새생명선교회**  
**미주 45개 한인교회 선정,**  
**총 45,000달러 지원**



새생명선교회(대표 박희민 목사)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45개 미주 한인교회 선정을 마무리하고 금주에 후원금 1천 달러를 우송한다고 밝혔다. 지원 총액은 45,000달러.

5월 초 시작한 재정 지원에는 총 200여 교회가 신청했으며 교인 수, 설립일자, 교단, 목사 상황, 신청일을 고려해 지원 교회를 선정했다.

또 교회 외에도 선교단체, 기도원, 봉사단체에서도 신청했지만 교회를 대상으로 한 원래 취지를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새생명전교회는 “가능한 형편에  
맞도록 고민하여 선정하였으나, 이  
번에 혜택을 받지 못한 교회와 단  
체에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이  
라며 “코로나로 여러 어려움을 겪  
고 있지만 주안에서 새 힘과 소망  
을 얻으며 날로 부흥 성장하는 한  
인교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 LA 민족학교 2020 장학금 수여식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 돼 달라”

## 5.18 광주민주항쟁 추모식 함께 진행

민족학교(대표 김동조)는 지난 29일 오후 4시, 온라인 화상 행사를 통해 '2020 민족학교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안젤라 오 민족학교 이사장 및 이사진과 실무진, 장학금 위원과 장학생 등 30명 가까이 실시간으로 참석했으며, 5.18 광주민주화쟁 추모식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이 행사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미서부, 동부 및 한국에서도 참관했다.

장학금은 총 4명에게 전달됐다. 정봉 뿌리 장학금에 김상민, 성봉 흥의 장학금에 이현빈, 드림 장학금에 김나영, 두레 장학금에 최혜원 학생으로 각각 1500달러를 수여받았다. 이현빈 수상자는 "선교사였던 아버지와 어릴 적 필리핀에서 살며 물, 의료 혜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이 목격했다.”며 “의대에 진학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커뮤니티와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돌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젤라 오 민족학교 이사장은 “우리 장학금은 학생 개인의 목표 성취만을 위해 수여하는 것이 아니다. 장학금을 마중물로 모두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가 돼 달라.”고 수상자에게 당부했다.

민족학교 장학금은 1995년 고이주영 할머니가 병과 캔을 모아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써달라고 민족학교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류미비자를 위한 드림 장학금을 거쳐, 다시 민족학교 초대 이사장인 고정봉 최진환 박사 가족이 후원하면서 민족학교 장학금 프로그램이 재개됐다. 이번에는 민족학교 전 이사였던 이명귀씨가 드림, 두레 장학금 등에 후원했다.



기독교일보, LA지역 교회 및 선교회에  
마스크 전달

기독일보는 LA백송교회(담임 김성식 목사) 성도들이 직접 제작한 수제 마스크 500장을 후원받아 LA 지역 교회와 선교회에 전달했다.

마스크를 전달받은 주님반석교회 권성은 목사,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 코이노니아 선교회 박종희 목사, 주비전교회 이상훈 목사, 나성서부교회 서건오 목사, 함께 걷는교회 박훈 목사는 마스크를 제작

한 백송교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독교일보 이인규 사장은 “지역 교회에 사람 나눔을 위해 마스크를 후원하신 LA 백송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울수록 함께 이겨 나아가는 따뜻한 마음이 LA 한인 교계와 사회에 널리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사



**빛은  
굴주림보다  
더  
크다**  
의외하지  
않았다



**굴주림보다  
더  
크다  
목마름**  
의외하지  
않았다



**책의 추천자들:**  
오대영목사(세무사도단), 주순애목사(정명대교회)  
이영희목사(대리대), 송정영목사(복음산대), 공동대교회,  
전진호목사(주주리대교회), 신강민목사(동명대), 데이비드,  
유준기목사(아미성교회), 김진식목사(OC공동대교회)

**박상준 목사  
책의 편지**

**“영의 재로 인해 영혼을 주께할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글)과 속된 ‘빛은 그를 의외하지 않았다’는 복한 건부 출판의 자전적 스토리와  
이화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저자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을,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를 분명한 메시지의 열림입니다.

※ CEO여정: GBMW 모든 개국교회 세광교회의 해를 위한 세광증수증 발행해 드립니다.



**기디온 도서선사**  
Gideon Brochure Ministries World

**GBMW 16825-488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4777 gbw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최고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견인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213-276-8959
email: usajyk@gmail.com

# 6.25 한국 전쟁 70주년 행사

- **일시** : 2020년 6월 25일 오전 10시  
 ▪ **장소** :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온라인 행사로 진행 : CTS기독교 방송 중계, 유튜브)  
 ▪ **문의** : 강태광 목사(323)578-7933, 박세현 목사(323)404-3147

- |         |   |
|---------|---|
| ■ 주 관   | - 세계기도모임 미 서부지부   |
| ■ 공동주최  | - 남가주 6.25전쟁 70주년 기념 사업회 / 세기모서부지부 / 은혜 한인교회<br>청교도 400주년 기념사업회 / 충현 선교교회 |
| ■ 협력언론사 | - 기독교일보 / CTS기독교 방송 / KCBC 우리 기독교 방송                                      |
| ■ 대 회 장 | - 강순영 목사 / 민종기 목사 / 박흥기 회장 / 한기형 목사 / 한기홍 목사                              |
| ■ 준비위원장 | - 김영구 목사  |
| ■ 진행위원장 | - 강태광 목사 / 박세헌 목사   |
| ■ 실행위원장 | - 양경선 목사  |

우리는 625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61

## “교회여! 선교의 야성을 회복하라”

1년 전쯤에 우리 교회 EM청년들이 공원 전도를 나갔다가 ‘데니즈’라는 한 흑인 청년을 교회 예배로 인도하였다. 요즘은 흑인이라 표현하는 것을 그들이 선호한다. “Black is beautiful”, “Black power” 등 당당하게 표현한다. 이 청년에 대한 내 기억은 종잡을 수 없는 변화무쌍이었다. 처음엔 은혜를 받으며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았는데 그다음엔 교회에 안 나와 청년들이 찾아가면 전날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로 있고,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잡혔는데 보호자 이름을 우리 청년을 대는 바람에 청년이 경찰서에 가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믿고 고생을 하면서 이 친구를 섬겼다. 그러면서 지금 1년 남짓 지났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대부분 다민족들이 어우러진 인터콥선교회 인터내셔널의 선교 프로그램의 리더들이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임에 대한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도 매년 갖는 “미주 청년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대학교 이상인 다민족 청년들이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5월부터 6월까지 도시와 캠퍼스 그리고 교회 등을 돌며 예배드리고, 그 땅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하는 구령과 비전 사역을 갖는다. 그들은 이 사역을 “March”라 부른다. 개신 부대의 승리의 행진을 의미해서다. 매년 교회연합으로 이루어져 참여인원이 40여 명이 참여하였는데 올해는 100명이 넘는 다민족 청년들이 모였다. 그들은 자발적이다. 스스로 기도하며 스스로 비용을 준비한다. 그들 중에서 각 지역별로 리더십이 세워진다. 서로 의논하며 계획을 세운다. 한 팀은 10명 내외로 한다. 그렇게 한 팀이 된 청년들은 1달 넘는 여름방학기간을 미 동부와 서부, 캐나다 동부로 전도여행을 떠난다. 처음 참여하는 청년들의 부모들은 많이 우려하고 반대한다. 필자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처음 참여할 때는 찬성하지 않았다. 일단 교회 예배 및 모임에 지장을 받아서이다. 그러나 대장정을 참여하고 돌아온 후 그들의 변화된 영성과 믿음의 자세를 보면서 “아! 저들이 영적 거인이 되었구나” 하는 감격을 가졌다. 그렇다. 그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군사로 훈련받은 기간인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매년 당연하게 청년 대장정 파송식을 거행하고 그들을 파송한다. 비록 개척하는 작은 교회이나 우리의 비전은 열방을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향한다. 주일 청년예배는 그들이 밟는 땅에서 드린다. 필자는 교회의 현장예배 및 열방 예배를 지향하고 지원한다. 대장정팀은 대륙을 횡단하며 불신자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 한다. 그리고 믿는 자를 만나면 정체성과 사명을 나눈다. 교회를 찾아가서는 열방을 향한 선교 비전을 나눈다. 적극적이다. 전도의 야성이 넘친다. 그렇다.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영적 야성이다. 매일 아침예배로 시작하여 개인 큐티와 연합기도회를 갖는다.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께 고하고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

지난 1년간 우리 청년들의 보살핌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던 청년 데니즈 형제가 이번 대장정에 참여하여 그 팀이 우리 교회 지역을 방문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을 숙소로 섬기며 지원했다. 필자가 “데니즈 힘들지 않아?” 물었을 때 그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저 뉴욕 행진까지 갈 거예요” 대답하며 환히 웃는 모습에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대견했다. 북미 각 지역별로 흩어져서 한 달여간 사역하던 청년들이 마지막 대장정의 종지부를 뉴욕에서 찍었다. 이번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와 슬픔을 겪은 뉴욕의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뉴욕으로 향했고 삼 일간 뉴욕의 거리, 공원, 학교 등을 행진하며 그들의 비전을 나누고 지난주 “2020 미주 청년 대장정”을 마쳤다. 필자는 이 청년들이 미 대륙을 행진했던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미국과 캐나다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하게 믿고 감사드렸다. 참여했던 그 청년들의 교회마다 그들의 간증과 영적 승리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교회는 선교의 야성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승리의 행진은 코로나도 넘어서며 더한 고난도 다 이겨 낼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악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세우기 위한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길 다시 한번 기도한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4) 도전

## 도전하는 삶이 행복합니다!

‘순천 소녀시대’로 불리는 유명한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릴 때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못 배운 것이 한이 된 할머니들이 뒤늦게 글공부를 했습니다. 글공부와 함께 그림공부도 했습니다. 기억, 니은을 배우며 그림책 작가로부터 동그라미, 네모 그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3여 년 세월의 연마 끝에 할머니들은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순천, 서울 그리고 해외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냈습니다. 할머니들이 펴낸 책 제목이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입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할머니들은 책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기소개서, 처절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웅색한 신접살림, 구박받았던 세월, 아들을 낳지 못해 겪은 설움, 글을 몰라 무시당했던 기억 등등을 거침없이 토해냈습니다. 이 책에는 할머니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짧게는 50년, 길게는 80년 이상 문맹의 설움을 견뎌온 분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참고 억눌려 왔었던 가슴 속 이야기를 터뜨린 것입니다.

할머니들은 60대, 70대, 80대 할머니들입니다. 수십 년을 까막눈으로 글자와 상관없이 살았던 분들입니다. 할머니들이 처음 글자를 익히고 그림을 배우 갈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포기하고픈 맘이 굴뚝같았을 것입니다. 이 나이에 한글을 배우고, 그림을 배우서 무엇을 할까? 하는 회의도 했을 것입니다. 한글을 익히고 그림 그리기를 배우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 하지만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 할머니들은 꿈을 이룬 멋진 청춘들입니다. 그녀들은 도전에서 성공하여 행복을 쟁취한 멋진 할머니들입니다. 할머니들은 행복한 청춘들입니다.

초밥의 명장, 안효주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일식당 밥미를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밥 요리사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초밥의 전문가로 성공하기 위해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도전했습니다. 그는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초밥 요리사는 한 번에 적당한 양의 밥을 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효주씨는 연습했습니다. 안효주씨가 생선초밥용으로 밥을 쥐면 식사용은 3백 50톨, 안주용은 280톨, 여성손님 다이어트용은 2백 78톨이랍니다. 공개적인 시험 결과 10번 중 8번이 한 톨도 틀리지 않고 정확했습니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 성공하면 남을 돕고 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실천하려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초밥을 대접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섬기고 나누는 삶도 이뤘습니다. 초밥 명장의 멋진 도전은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는 행복한 요리사입니다.

에이미 멀린스(Aimee Mullins)는 미국의 육상 선수요, 배우요, 모델입니다. 그녀는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1세 때 무릎 아래 절단 수술을 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조지타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때 전미 대학 경기 협회(NCAA)의 육상 경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녀는 NCAA 경기에 참여한 최초 장애인입니다. 1996년 하계 패럴림픽에도 참가하였으나 육상 100m에서는 예선 탈락, 멀리뛰기에서는 7위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전의 승자였습니다.

에이미 멀린스는 역경을 기회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녀의 치명적인 약점인 장애가 그녀의 실력이 되었

습니다. 그녀는 도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역경은 기회가 되었고 그것이 자량이 되었습니다. 에이미 멀린스는 자신의 역경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는 도전을 통해 근사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은 멋진 도전으로 꽃 피운 인생들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삶에는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역경은 거꾸로 읽으면 경력입니다. 역경을 극복하면 그 역경은 경력이 되고, 실력이 됩니다. 극복된 역경은 자량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극복된 어려움은 인생 계급장입니다.

“도전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의 저자 정훈기씨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인생에 도전합니다. 그는 1994년 뇌성마비 장애인 최초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성취 않은 몸으로 만만치 않았지만 서울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직은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또 도전합니다. 일반인들과 경쟁하여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정훈기씨는 대 기업에 공채로 취직한 장애인으로도 유명합니다.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불가능에 도전할 때 인생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존 듀이 박사가 90회 생일을 맞았을 때 누가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무엇을 할 생각이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산맥은 깊습니.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지요. 나는 여전히 새로운 산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나타난 장애는 도전 정신을 자극합니다.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고지가 보이면 아직 청춘입니다. 반면에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고지가 보이지 않으면 이미 늙은 인생입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김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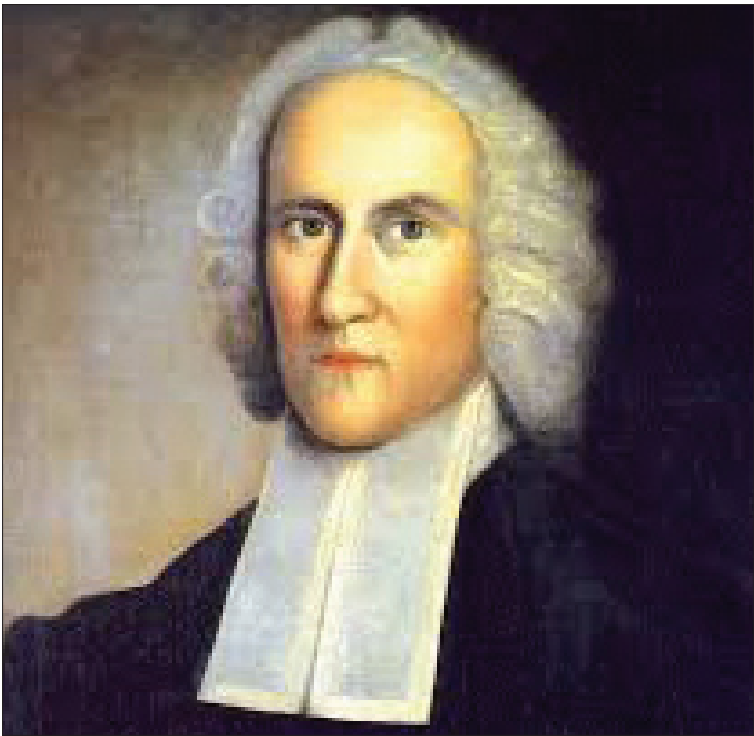
한 달에  
**30불, 35불** 소액  
회원 가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세요!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213)318-5227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6) 조나단 에드워즈와 제1차 대각성운동

“성정을 사랑한 사람, 칼빈주의자, 가슴의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 열정과 능력의 복음 설교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J.I.Pavker-

“독일은 마틴루터를, 불란서는 존 칼빈을, 영국은 요한 웨슬리를, 미국은 조나단 에드워즈 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했다” -박용규 교수-

“청교도들을 알프스에 비유하고 루터나 칼빈을 히말라야에 비유한다면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에베리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다” -마틴 로이드 존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요, 부흥 운동가요, 탁월한 철학자 였던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 1758)는 1703년에 코네티컷주의 이스트 윈저에서 청교도적 경건을 소유한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즈 목사와 노스햄턴에서 탁월한 목사였던 솔로몬 스토타드의 딸인 어머니 에스더의 11자녀 중의 5번째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청교도적 훈련을 받으며 자랐고, 13세 때 라틴어,그리스어, 히브리어를 읽을 수있었으며, 곤충들에 관하여, 무지개에 관하여, 혈액순환에 관하여 소논문을 쓸 정도로 조숙한 천재였다. 13세에 뉴 헤이븐에 있는 예일대학에 입학하여 존 로크와 뉴턴의 사상을 알게 되었고 17세에 수석으로 예일대를 졸업한다.

그의 회심과 70가지 결의문

졸업 후에 뉴헤이븐에서 2년간 더 신학을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 그 기간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딤후1:17) 말씀을 읽고 성령을 체험한 후 그리스도로 더욱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기를 원하는 불타는 열망을 갖게 된다.

이 회심 후 1722-1723년 기간에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복음적 선행 실천에 대한 최고의 지침서로 평가되고있는 “70가지 결심문”을 작성한다. 그는 이 결심문으로 매일 밤 자신을 점검했고 죽을 때까지 매주 한번씩 읽으면서 삶의 기준으로 사용했다. 그 결심문 중의 첫번째는 “나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유익과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였다.

1737년에는 숲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화롭게 되신 성자 예수님의 형언할 수없는 영광을 거의 한

시간 동안 목격하고 감격의 눈물 속에서 그리스도 만으로 충만해지고 싶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더욱 섬기고 따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했다고 고백하고있다.

노스햄턴 회중교회 목회와 대각성 운동

잠시 뉴욕에서 임시목사로 섬기기도 했고, 21세에 예일대학 강사로 2년간 후진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1927년 24세에 외조부가 목회하시던 노스햄턴회중교회에 부목사로 갔다가 1729년에 외조부가 사망하자 담임목사가 되어 섬기게 된다. 그해 6월에 사라 피어폰트와 결혼하여 모범적 부부생활을 하며 11명의 자녀를 낳아 청교도적 경건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했다.

영국의 부흥사 조지 휘필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을 방문했다가 사랑스럽고 정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고 영국으로 돌아가 곧바로 결혼을 작정했다고 할 만큼 그의 가정에 관한 모범은 잘 알려져있다.

당시 미국의 영적 상황은 참혹했다. 회심하지 못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탈락기에 영적 어두움이 만연했다. 청교도들의 열정과 정신은 사라졌고 황금의 소나기, 성령의 감동도 중단 되었다. 중생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들은 대부분이 잠들어 있었다고 묘사되어있다.

요나단 에드워즈는 죄악을 향해 달려가던 세대를 향해 그들에게 준비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직설적으로 알리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죄의 공포가 심령을 엄습하게 함으로 죄인들로 머리를 뜯고 가슴을 치며 회개 하게 했다.

그의 대표적인 설교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로 잘 알려져있다.

그가 목회했던 기간에 1734-1736년과 1740-1742년 기간에 두

번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 났다.

그는 두번의 부흥의 역사와 특징을 “놀라운 회심 이야기”란 책으로 출판 했는데”1735년 봄과 여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 마을에 가득한 영광스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기록했다.

이 기간 6개월 동안에 200호의 마을에서 300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다. 성찬에 참여하는 수가 620명에 달했는데 이 수는 마을 전체의 성인들의 숫자였다고 한다. 이 부흥의 특징은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철저한 회개를 통한 변화였다.

이 부흥의 불길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뉴잉글랜드 여러지역이 부흥을 체험하게 되었다.

1740-1742년에 일어난 두번째 부흥은 조지 휘필드와 함께 일으킨 부흥운동이었다. 조지 휘필드의 노스햄튼 집회 후 조나단 에드워즈와 보스톤의 여러 목사들이 조지 휘필드를 초청함으로 부흥이 뉴잉글랜드 여러지역에 임하게 된다.

페리 밀러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조지 휘필드는 폭발 시켰다”라고 기록했다.

조지 휘필드는 1770년까지 7차례나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여러도시에 영적각성의 불을 지피다가 미국에서 죽었다.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나 인디언 선교사로, 프린스턴 대학 총장으로

1750년 47세에 성찬논쟁으로 24년간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다.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갈등이 생겨 신민주표 결과 불신임을 얻게 되어 교회를 떠나게 된다. 메사추세츠 주의 스토크브리지 지역 인디언 교회가 그를 청빙하자 인디언 선교사가 되어 7년을 지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곳에서 많은 책을 쓰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1757년에 그에게 적합한 일이 주어졌다. 지금의 프린스턴대학의 총장으로 부름받아 취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천연두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부임 3개월 만에 일생을 마감해야 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사역 정리

1, 영적 도덕적 타락이 심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면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특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범적 가정을 이룸으로 그와 그의 가문은 대표적인 믿음의 명문가로 알려져있다.

2, 매일 13시간씩 말씀 준비시간에 성령님과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기에 그의 설교에는 깊은 진리와 뜨거움과 열정이 넘쳐났고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함께했다. 강단에서 제스처, 웅변은 거의 없었지만 항상 깊이 깨닫게 하고 감동받게 함으로 결단하게 만드는 설교를 했다.

3, 죄악에 흠뻑 젖은 세대를 향해 그들에게 준비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선포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 청중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으며 머리를 뜯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 그 결과 영적각성이 온마을의 가정마다 일어났다.

4, 가장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동시에 소유했음에도 지성이 영성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영성이지성을 지배했다. 자신의 지성과 학문적 재능이 최고의 권위인 성경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를 원했다.

5, 그는 균형잡힌 신학자, 전도자, 목자였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칼빈주의자였다.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깨우치지 않았던 신학자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또한 진리에 대한 지

적 동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느낌으로 감격의 체험을 강조하며 지적 동의와 감정적 체험을 조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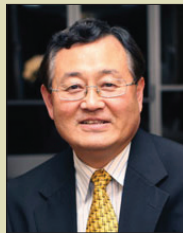
6, 그의 수 많은 저서들과 설교문들은 그를 만나지 못했던 무수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그의 부흥에 관한 책들은 부흥에 대한 표준 교과서 처럼 되었고, 후대 사람들은 그를 심오한 지식과 경건을 조화시킨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칭송하고있다.

7, 영적각성운동은 뉴잉글랜드 여러 주를 종교적, 도덕적으로 연합시켜 주었고 장차 미국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 주었다.

주님!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거룩을 추구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종들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한 연구는 여러 서적과 글 중에서도 박용규교수님의 “세계 부흥운동사”를 많이 참조하고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이 시대의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 순 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aeu.edu, aeu@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시위대 앞에 무릎 꿇은 美 경찰, ‘기도와 포용’ 으로 화합

조지 플로이드 사망 규탄 시위가 미 전역을 뒤흔드는 가운데, 미국 일부 경찰들이 인종 차별 혐의에 공감하며 시위대 앞에 무릎을 꿇어 큰 울림을 던지고 있다고 현지 기독교 언론인 크리스천포스트를 비롯해 CNN방송 등 복수의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CNN방송은 2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기도와 포용을 통해 시위자와 함께 하는 경찰관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경찰들은 무릎 꿇기를 통해 플로이드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평화적 시위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에드 크라우스 경찰서장은 최근 시위 현장에서 시위자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경찰관들도 한쪽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크라우스 경찰서장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이는 의미있는 좋은 조치였다. 우리의 마음이 전해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전역의 경찰서장들도 최근 코랄게블스 시청에서 시위하는 시위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



미국 뉴욕 경찰관들은 5월 31일 뉴욕의 익사이팅 처치 가렐 솔로몬 목사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 christianpost.com/Dr. Te Bassett

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경찰대변인은 NBC 마이애미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며 “이는 올바른 방향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소스처치 조안 호엔목사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경찰관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고 고백했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터뜨리며 경찰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며 당시의 감동적인 상황을 전했다.

뉴욕 맨해튼 다운타운의 법원 앞 폴리 광장에서는 뉴욕 경찰관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플로이드를 추모했다.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앉는 이른바 ‘무릎앉아’ 자세는 인종 차별 혐의를 뜻하는 상징적인 자세다. 2016년 경찰의 총에 맞아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당시 미국프로풋볼(NFL) 선수 폴린 캐퍼닉이 항의의 뜻으로 국가가 연주될 때 이 자세를 한 것에서 유래해 퍼졌다.

제프리 매드레이 뉴욕경찰서 부서장은 “평화를 꾀하고 중재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함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나는 매일이라도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익사이팅 처치 가렐 솔로몬목사는 “우리의 목소리를 평화롭게 들려줘야 한다”고 호소하며 “미국 경찰관의 ‘무릎앉아 자세’는 미국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벌어진 시위에서도 일렬

로 방어선을 친 경찰관들이 시위자들 앞에서 일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같은 현장에서 방독면과 헬멧, 방탄조끼를 쓴 한 경찰관이 한 시위자와 ‘위로의 포용’을 나누는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또한 루이지애나주 바톤루즈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찰들의 지원을 받아 더 엘리베이트드 교회에 모여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바톤루즈 머피 폴 경찰서장은 “미국 내 모든 인종의 평화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방법으로 기도회에 참석했다”며 “기도를 통해 지역 사회와 경찰관들을 일으켜 세우길 원한다”며 주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폴 경찰서장은 “상처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는 “폭력적인 행동과 약탈이 미국 전역의 도시들에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기도와 평화로써 하나가 되었다”며 기사를 마무리지었다.

김근혜 기자

## 미 오리건주, 대형건물 거리두기시 최대 250명 현장예배 가능

미국 오리건주가 종교 시설의 현장 예배를 제한해 온 기존의 입장을 완화하는 새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캐서린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25명으로 제한하던 현장 예배 인원을 실내는 50명, 야외 모임은 1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충족하는 여건에 한해서는 건물 내에 최대 25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시 재개를 위한 2번째 단계의 행정 조치이며 오리건주 산하의 26개 자치주들에 적용된다. 주지사는 “2단계로의 전환을 승인 받은 자치주들은 1단계에 속한 일부 규제들을 완화하며, 몇몇 지구들은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바뀐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1,200달러의 벌금이나 30일 징역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적용되는 C클래스 경범죄로 처분

받게 된다.

미국내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오리건 주에서도 현장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대한 여러 건의 소송이 이어져 왔다.

이번 새 지침은 특히 옛지위터크리스천 펠로우십과 로즈버그 교회가 브라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며칠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두 교회는 주지사가 지난달에 25명 이상이 모이는 종교 집회를 금지하고, 직장, 학교, 식료품점등은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초에는 오리건주 베이커 카운티 순회법원의 매튜 셔클리프 판사가 주지사가 지역 사업체들의 운영과 예배 행위를 28일이 넘도록 제한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행위이며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교회와 목회자를 변호해 온 자유수호동맹(ADF)은 지난주에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야 종교단체들이 식



오리건주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 ©케이트 브라운 페이스북

당, 체육관을 포함한 대중 단체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며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자유수호동맹의 고문인 갈렐 달튼은 “우리는 브라운 주지사

가 더이상 교회를 배제하거나 체육관, 식당, 소매업소보다 더 나쁘게 대우하지 않도록 공공 보건 지침을 조정한 것에 대해 칭찬한다”며 “교회와 다른 예배 장소들

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 기자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종교 자유, 미국의 최우선 정책”



작년 백악관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제공

### 5천만 달러 예산 책정 등 새 행정명령 내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국제적 종교의 자유를 우선한다며 종교 자유의 발전을 위해 5천만 달러(한화 약 607억 7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국제 종교 자유 증진’에 관한 새로운 행정명령은, 국무부와 연방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미국 최초의 자유인 종교의 자유는 도덕과 국가 안보에 필수불가결하다”면서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종교 자유가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사항이며, 미국은 이 같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행정명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약 180일 동안 국제개발처(USAID) 행정관과 협의해 미 외교 정책 기획과 이행, 국무부 해외 원조 프로그램 등에서 국제 종교 자유를 우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 종교 자유 침해 ‘특별감시국’과 ‘특별우려국’에 포함된 국가의 공관장들에게 직접 지시해,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미 정부의 노력을 알리고 지원하는 종합행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정부가 종교 자유의 침해를 막는 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함이다.

행정명령은 미 국무부가 재무부와 협력하여 특별관심국 또는 특별감시국의 종교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경제적 도구의 적절한 사용’을 우선하는 권고 사항’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 제재 수단에는 종교적 자유 프로그램의 강화, 국가의 상황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해외 원조 재배치,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미국은 미국 자산 압류나 여행

금지를 통해 인권 침해 가해자를 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글로벌 매니즈키법에 따른 제재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프랭크 R. 울프(Frank R. Wolf) 국제 종교 자유 법’에 기술된 바에 따라, 모든 국무부 외교 공무원들에게 3년마다 국제 종교 자유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직책의 인사를 맡은 모든 기관의 장은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 훈련의 유형을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무부와 국제개발처는 “실행 가능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당금의 가용성에 따라 국제 종교 자유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에 회계년도마다 최소 5천만 달러(한화 약 607억 7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신앙을 이유로 한 개인과 집단에 대한 공격을 예상하고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 뿐 아니라, 이러한 집단이 구별된 공동체로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포함돼야 한다.

행정명령은 또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집행부 및 기관은 해외 적격 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교 기관 및 단체가 미 정부의 지원을 신청할 때, 종교적 정체성이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그가 이날 오전 워싱턴 D.C.의 역사적인 세인트 존스 교회(Saint John’s Church)를 방문한 데 이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저녁 세인트존스교회 앞에서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조니 무어(Johnnie Moore) 목사는 “이 명령은 역사적이며, 중국 공산당이 전향화한 ‘부분적으로 부활한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혜진 기자

## 남침례교인 작년 28만 명 떠나... 100년 만에 큰 하락세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단(SBC)의 교인 수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하락을 겪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남침례교단 산하의 출판부서가 작성한 ‘연간 교회 개요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8만 7655명의 교인을 잃었으며 이는 교단의 2%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교인은 1452만 5579명이다. 라이프웨이 기독교 리서치에 따르면 이 통계는 남침례교단이 한해(one year)기준으로는 약 100년 만에 겪은 가장 큰 하락세다.

2018년 한 해 동안 교회는 74개가 증가해 4만 7530개이지만 교인의 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세례 수도 4% 하락해 2018년에 24만 6442건에서 2019년에 23만 5748건으로 줄었다.

남침례교의 교구 수는 51,138개로 감소했으나 여러 장소를 포함하는 교구(multisite congregations)의 수는 505개로 성장했다.

교인 수 감소와 더불어 남침례교단에 가입하는 추세도 위축됐다. 교단의 헌금액 또한 1.44% 감소한 116억 달러로 보고됐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코트 맥코넬 이사는 침례의 감소는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세속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성명에서 그는 “이런 숫자들이 지난 한 해에 많은 개인과 교회들이 쏟은 모든 복음주의적 노력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는 없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와서 세례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맥코넬 이사는 연간 통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면 접촉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업데이트된 자료들로 인해 가능했다고 밝혔다.

퓨 리서치 센터의 한 연구에서는 미국인의 65%만이 현재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반면에, 무신론자,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불가지론자, 다른 종교를 가진 인구는 26%로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의 미국인 크리스천 수와 비교했을 때 12% 감소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공공종교연구소가 ‘미국인들이 종교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연구에서는 미국 성인의 비율에서 ‘종교와 무관한 계층의 증가’와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탈’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이 연구는 오늘날의 미국 젊은이들은 종교적 정체성 없이 자라날 가능성이 노인층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김진 기자

## 교회·민선교회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교동부 예배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금요 말씀과 삶 공부  
토요일침례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7:00  
오후 7:00  
오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토요일) 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를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den 코너)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아나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리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 토)  
2부예배 오전 9: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시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포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츠예배(열린예배) (소매점) 오전 11:0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신도모임과 만민부 지역 연합회 한민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망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어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느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종교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헌양찬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6:00 (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00  
3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전 6:00 (토)

**MP제**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00  
수요성경공부 목회 7:45  
588 Altos Ave., Monterey Park, CA 91753  
1814 Rinalto St., Northridge, CA 91328  
T. (818) 935-6587 T. (818) 937-58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종동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제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월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 (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강화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n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웅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중국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이 과거 기도회에 참석했던 모습. ©차이아이에드 제공

## 中 코로나 봉쇄령 완화 후 십자가 철거 및 48개 삼자교회 폐쇄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봉쇄령을 완화한 뒤 삼자교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십자가를 철거하고 폐쇄했다고 2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 종교자유와 인권에 관한 이탈리아 온라인 매체 비터윈터를 인용해 중국 장시성 위간 현에서 지난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최소 48개의 삼자교회가 당국에 의해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위간 현에 거주하는 백만 명 인구 중 10% 이상이 3백개가 넘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삼자교회를 출석하는 개신교인이다.

익명의 삼자교회 교인은 지난 4월에 시장을 포함한 세켄 마을의 관리들이 교회의 연단, 십자가 및 기타 종교적 상징물을 강제로 철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만약 항의하면 공산당과 중앙 정부에 맞서 싸운다는 이유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간 현 다시 마을에 거주하는 신자는 비터윈터에 “이 지역 공산당 비서관은 이곳에 너무 많은 신자가 있기 때문에 당

국이 교회를 폐쇄하고 십자가를 철거하길 원했다고 기독교인들에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증언에 따르면 비서관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가 공산당의 말을 듣겠는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철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비터윈터는 또 지난 4월 구지양, 푸저우, 평정, 상타오 및 그 밖의 몇몇 도시들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양부 마을의 한 신자는 4월 중순 지방 당국이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를 노인시설로 개조할 계획을 전했다고 밝혔다.

오픈도어즈 미국지부 세계 감시 목록에 따르면 중국은 기독교인의 박해와 관련해 세계최악의 국가 중 하나다.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교회 규모가 성장하거나 정치적이거나 혹은 외국인을 초대할 경우 당국이 위협으로 인식한다.

이미경 기자

## 코로나 투병 중 쓴 세네갈 선교사 기도문 큰 감동

GMS 소속으로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선교하던 중 코로나에 감염돼 건강을 되찾고 있는 김명수 선교사를 위한 기도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선교사가 투병 중에 쓴 기도문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GMS에 따르면 김 선교사는 지난 5월 11일에 발열이 시작됐고, 5월 2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교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의 위생상태가 열악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주위의 도움으로 다시 큰 병원으로 옮겨 현재 회복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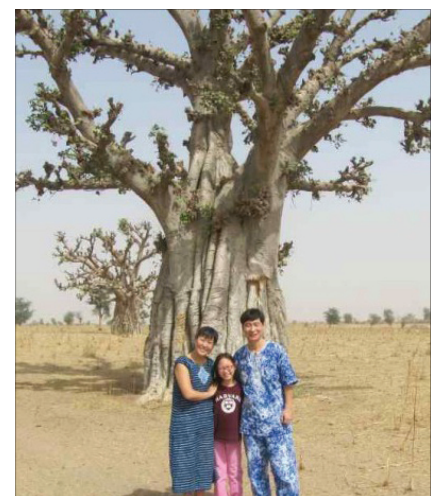
김 선교사는 아프리카 불어권 지역에서 그 동안 사역해 왔으며 최근에는 세네갈 비아 지역에서 헌신하고 있다. 사모인 박경희 선교사와 자녀는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다.

김 선교사는 투병 중에도 감사하다는 내용의 기도문을 작성했다. 김 선교사는 “현지 교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현재 선교활동이 중단된 선교사가 코로나에 감염돼 감사하다”면서 “이곳(세네갈)의 의술과 시설이 한국보다 훨씬 낙후됐지만 주변의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썼다.

특히 김 선교사는 “기왕이면 외로운 선교사가 코로나에 걸려 감사하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하며 기도하기에 나는 혼자 아니며 결코 외롭지 않은 선교사라는 사실에 감사했다”면서 “저를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들 중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다음은 김명수 선교사 기도문 전문.

주여,  
기왕이면 선교사가 걸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막혔으니 시간이 남는 선교사가 걸려 감사할 뿐입니다. 오히려 사업을 하는 교민이 걸린다면 그 사업체에 큰 어려움이 있을테니까요.

기왕이면 세네갈에 있는 선교사가 걸려 감사합니다. 이 곳의 의술과 시설이 한국 보다는 훨씬 낙후되었지만 그래도 주변의 감비아나 말리, 기네, 기네비사우 같은 나라들보다는 의료 환경이 더 좋아 치료를



세네갈에서 사역 중인 김명수 선교사(우측)와 가족들 ©세종로교회

받을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주여,  
기왕이면 외로운 선교사가 코로나에 걸려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본다 하면서도 늘 이방인이 될 수 밖에 없는 아프리카 땅에서 홀로 외로운 때가 종종 있고 흑친구들은 나를 잊고 있었지라고 체념 비슷하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하며 기도하기에 나는 혼자 아니며 결코 외롭지 않은 선교사라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기왕이면 연고자가 거의 없는 자가 코로나에 걸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양가 일가친척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영적으로 무연고자 같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로 퍼서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에 나는 무연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이 고통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나 저의 고통을 마지막으로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들 중에, 우리 GMS 선교사들 가운데 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김대원 기자



“北이 가장 싫어하는 것…  
진실 알리는 대북전단”

탈북민들, 북한의 빠라 비난과  
우리 정부 대응에 비판적 반응

북한 김정성의 여동생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군사합의 위반’ 운운하며 비난하자 우리 정부가 관련 법률을 준비 중이라거나 대북 전단 실은 풍선이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탈북민 기독교인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북전단 사역을 하고 있는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이민복 대표는 “(우리 정부 발표가) 일리는 있다. 조용히 비공개로 하면 되는데, 일부 단체에서 너무 떠들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정부에서 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풍선에 넣을) 가스 관련 자격증과 허가받은 운반 차량으로 해야 한다. 일부 무자격자들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있는 것”며 “법으로 막으려면 이런 것을 막는 게 낫다”고 전했다.

대북전단의 효과에 대해서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결정적인 것이다. 그러니 막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김정은-김정일-김일성 3대를 신격화하고 있는데, 정권을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시키자며 진실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서 인터넷을 왜 막아놓겠는가. 개방이 되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다면, 통치가 되질 않는다. 그들은 전범자 아닌가”라며 “오죽하면 지난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 ‘돈 달라’는 것보다 대북 방송과 빠라(대북전단)를 중단하라는 말을 먼저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빠라 보고 탈북한 사람들이 수도룩하다. 저도 빠라 보고 탈북했다”며 “단 한 국 식으로 써서는 좀 그렇다. 이북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들 식으로 쓰는) 탈북민들이 뿌리는 빠라가 무서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북한 ‘김정은 위중설’ 당시 과장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강철호 목사(새터교회)도 “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며 “그러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강철호牧사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싫어한다 해서 법으로 막는다면,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싫어하니 정부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건 아니라고 본다.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목사는 “(김여정의 주장은)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대



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풍선 사역 현장.

단히 크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한다. 핵개발을 비롯해 북한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빠라”라며 “막을 것이 아니라, 대북전단을 통해 북한을 자주 자극시켜야 한다. 정부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북한을 대화의 마당으로 끌어내는 촉진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북전단의 영향을 받고 탈북한 분들이 국내에도 많다. 북한 내부와 통화해 보면, 빠라가 심심찮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이 그걸 읽고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며 “북한 사람들에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는 신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 범죄자보다 더한 범죄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혼자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김일성 일가에 대한 진실이 주민들에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강철호 목사는 “이제는 정치적으로 북한에 영향을 끼치기가 어려워졌다. 북한이 워낙 세계 나오면서, ‘북한을 건드리지 말고 김일성 김정일 사상을 이해하자’는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통일이 쉽지 않다. 북한 사람들의 세뇌된 사상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목사는 “하지만 주체사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여보낼 것인가. 한국 식으로 성경만 보내선 안 된다. 북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접해보지도 못한 이들이기 때문”이라며 “신앙을 먼저 접한 국내 탈북민들은 그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증거하고 전달할지 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명성교회 교인 코로나19 확진…  
“공예배 다시 온라인 전환”



명성교회 ©뉴스시스

명성교회가 “6일 교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며 “광역당국에서 발표한 리치웨이 다단계 확진자(42명) 중 1명(70대 남성)이 강동구에 거주하는 교인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보건당국에서 실시 중인 역학조사에서 확진자의 확진 일시와 동선은 명성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성도님들의 오해를 방지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안심과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서 선제적

으로 위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6월 7일(주일)과 14일(주일) 두 주간 주일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6월 21일(주일)부터는 다시 예배를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명성교회는 그간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예배실 입장 시 발열체크와 손소독, 분당 내 안전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n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현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영으로 행함을 사랑는 예배공동체 ALL IN Jesus 사랑 모든 것을 가는 복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하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에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 : 45 목요일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이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주) 제자사역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 예배 : 오전 9:30 청년부 : 오후 2:00  
2부 예배 :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 오전 9:30  
English Ministry : 오전 11:30 금요 기도회 : 오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 오전 5:30 (월-금)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아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엘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워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글)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남성수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여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2020 여름학기 강의스케줄

요일	시간	과목	교수
Mon	오후7시-9시	로마서	Dr. James Lee
Tue	오후7시-9시	조직신학1	Dr. Elijah Kim
Thu	오전9시-11시	룻기, 삼상,하 왕상,하	Dr. Timothy Song
	오전 11시10분- 1시10분	현대신학2	Dr. David Lee
	오후2시-오후 4시	현대교회사	Dr. Daniel Min
	오후7시-9시	설교학	Dr. Jong Yong kim
Fri	오후7시-9시	청교도신학과 신앙	Dr. Elijah Kim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 신학학사과정 (B.Th) | 128 학점
- 목회학석사과정 (M.Div) | 96 학점
-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학위과정)\*

개강일자 : 2020년 6월 22일

상담전화 | 213-272-6031

## 미 주 크 리 스 천 신 학 대 학 교 ( 원 )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복명가왕 – 숨겨진 고수



안 성 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한국 쇼 프로그램 중에 ‘복면 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수 뿐 아니라 아나운서, 운동선수, 개그맨, 영화배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며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프랑스, 태국 등 세계 각지에 수출되어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유명한 방송국인 FOX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The MASKED SINGER’라는 이름으로 방송 중에 있는데요. 현재 시청자 수가 매 회당 1천 만 명을 넘겼다고 하니,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참, 잘 부른다.’는 생각에 ‘당연히 가수겠

지?’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개그맨, 아나운서 등이 등장하고, 또 ‘이 정도 부르면 중견 가수 정도는 되어야 답아낼 수 있는 성량과 감성인데...’ 생각했는데, 아이돌인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이 가지는, 배경이 가지는, 인물이 가지는 모든 편견을 배제하고 오로지 ‘노래는 노래로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숨겨진 고수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복명가왕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사람들에게는 다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이미지로 가려진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부족한 사람으로 가려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지를...

사람들에게 보여 지는 부분에서는 그런대로 괜찮아서 직분도 받고 인정도 받았습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서는 가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들려 지는 나의 삶의 노래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의 삶이 내 진짜 신앙이고 오늘의 삶이 내 진짜 실력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옛 말이 있지요. 혹시 신앙에 있어서 요란한 빈 수레 같이 살아왔다면, 이 COVID19 기간 중 자신을 점검하여 짝 채워진 무게감 있는 수레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려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의 깊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신앙의 숨겨진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에서 예배하라(말2:10-15)



신 용 환 목사  
나성ham교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행동인 동시에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임재를 훈련한 수도사 로렌스 형제는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예배를 드렸다면, 삶에서 그 예배의 영향을가장 많이 받는 곳은 가정이고,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아내,좋은 부모가 되어야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삶의 개혁의 출발을 예배에서 시작하고있고, 2장에서는 성전과 제단앞에서뿐만아니라 일상과 삶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첫째 예배의 실패는 다시 반복된 삶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후, 성전을 짓고 제사를 회복했지만 70년동안 이방문화에 익숙해져서 자녀들을 이방사람의 딸들과결혼시켜 조상들의 언약을 욱되게 하였

습니다.(말2:10)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는 언약적인 관계임에도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말2:10) 결혼의 히브리원어는 바알이고, 그뜻은 주인으로삼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결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이 되게 하는 일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과 결혼은 자신의 주인, 자신의 신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믿는 사랑과 결혼해야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시대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는데(스9:2,느13:25)잘못된 예배를 드린 제사장의 영향력이 백성들의 삶에 이방여인과 결혼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둘째 예배의 성공은 가정생활의 성결을 회복하는 일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제사장들이 옷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겼듯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성결하지 못한 말라기 시대의 배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와 제단을 가리게 했다고 하셨습니다(말2:13) 어려서 취한아내를 학대하여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제사와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말2:13) 가정생활은 엉망인데 교회생활만 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기쁘게하고 가족들의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돌아보아합니다. 일상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시길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리더를 가질 수 없는가?(1)



박 동 식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1. 변하는 시대

2017년 어느 국회의원의 공항입국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좌관을 보지 않고 가방을 그가 있는 쪽으로 밀면서 공항을 나왔죠. 일명 농구 용어인 “노룩패스”(No Look Pass). 걸음걸이도 상당히 거만하게 보였습니다. 보좌관은 그 가방을 집으려 조금은 뛰며 허리를 조금 굽혀 인사하는듯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자신의 그런 모습이 언론에 오르자 ‘그게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했다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

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관습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이 장면은 어쩌면 그야말로 ‘권위적인 구시대 리더’의 전형을 보여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리더가 받아야 할 것은 시민들의 냉랭함이었습다.

이에 반해 그즈음에 지금 대통령이 보여준 ‘섬김의 리더십’이 화제였습니다. 대선 토론하는 모습에서부터, 사인을 받으려는 아이가 종이를 찾지 못하자 쪼그려 앉아 기다려 주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죠. 그동안 정치진영에서 보지 못했던 리더십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의 인품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스펙 보다 상대방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새로운 시대는 자신이 선 자리에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어 그의 노동자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원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의 이야기는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 보여줍니다. 아하수세로 왕이 하만을 다른 모든 대신 보다 높여 주었을 때, 권력의 맛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유다인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모르드개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다인 전부를 전멸하고자 합니다. 모르드개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 합니다. 권력 남용이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이의 최후는 자명합니다. 그가 그 나무에 달려 죽죠. 그러니 권모술수는 버려야 합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입장은 버려야 합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지요. 한 번 잡은 권력, 영원한

가요? 아무리 화려한 꽃송이도 언젠가는 지듯이, 권력 또한 유통기한이 있음을 안다면, 거만할 수가 없을 터인데 말입니다. 꽃잎 떨어지지 않게 하는 법이 없듯이, 영원토록 권력 잡는 법도 없지요. 이 간단한 진리를 권력을 가진 모든 이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떠한 리더를 필요로 하는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표리부동하지 않는 리더

율곡 이이가 쓴 『성학집요』의 표지에는 “성인이 갖추어야 할 배움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인 또한 배워야 합니다. 배움에 끝이 있을까요? 오늘도 배워야 합니다. 율곡이 임금에게 말합니다. “예가 엄격하지 않고 마음이 공정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말과 선한 정치라도 모두 한갓 공허한 조문(文具)이 될 뿐입니다.” 여기서 조문은 번역된 “문구”의 사전적 의미는 “실속이 없이 겉만 꾸미거나 형식만을 차림”이라는 뜻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며 날마다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언제나 이리저리 휘둘리게 마련이며, 인기를 얻으려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을 보이려고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기 마련일 겁니다. 그럴수록 속과 겉은 어긋나며, 그 간극도 점점 더 벌어지겠지요. 하지만 이내 그것에 익숙해질 것이며, 급기야는 아무런 정체성의 불편함도 갈등도 없이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표리부동(表裏不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용』에서 “군자는 안으로 살피서 꺼림칙함이 없고, 뜻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든 속마음이 다르면 꺾

끄럽거나 부끄럽지요. 자신이 하는 일을 속마음의 불편함 없이 했으면 합니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한 일을 할 때는 죄책감이 없지만 나쁜 일을 하면 죄책감이 발동합니다. 나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주위를 살핍니다. 그 말은 타자를 의식한다는 말이지요. 다른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본인이 타자가 자신의 나쁜 행동을 볼까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겉과 속이 다름을 어느 날 문득 보고 깨달을 때 사실 창피하죠. 그동안 이렇게나 다르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뭔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랬겠죠. 하지만 그런 이중적인 모습 속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삶의 만족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 속마음을 살피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리더라면 더 그래야겠지요.

3. 열린 마음을 가진 리더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는 세종 대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아들 세종에게 묻습니다. ‘너의 조先是 무엇이나?’ 세종은 ‘전각을 지어 경전을 배우고자 합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전각의 이름을 ‘현명한 자를 모은다’는 “집현전”으로 받습니다. 그 집현전이 하는 일은 “권력의 독을 감추고 칼이 아닌 말로써 설득하고 모두의 진심을 얻어내어 모두를 오직 품고 하여 방진의 일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2, 3, 4, 5, 6.. 모두가 제 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조선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릴 것이옵니다.”라

고 합니다. 세종은 ‘문(文)’으로 조선을 다스리겠다 합니다. 서론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지요. 한 공동체가 건전하게 되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토론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토론이 허용된다는 것은 일방적 지시가 아닌 소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열린 태도가 있을 때 그 공동체 혹은 국가는 희망이 있을 겁니다.

니체는 “불쌍한 양들”은 대장에게 ‘항상 앞장서기만 하면 당신을 따를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하고, 불쌍한 대장은 반대로 ‘항상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를 이끌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한다고 합니다. 양들은 따라가기만 하고 대장은 앞서가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지요.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지체의 모습 또한 아닙니다. 항상 따라가기만 하는 이들은 주체성이 상실될 위험이 있으며, 항상 따라오게만 하는 지도자는 독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닫힌 구조에서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리더는 그런 자리에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이들의 말에만 현혹되지 말고 직언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권력은 거리를 둥니다. 경계를 세웁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이러한 리더가 있으면, ‘공동체가 바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진짜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같다’는 어떤 느낌적 느낌, 생각적 생각, 희망적 희망을 하게 됩니다.(계속)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설국열차> (上)

<설국열차> 계급투쟁 사슬, 유일하게 끊어냈던 ‘초대교회’

넷플릭스 TV 시리즈로 방영중인 <설국열차>에 대해 분석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를 리메이크한 이 드라마는 제니퍼 코넬리, 다비드 디그스, 앨리슨 라이트, 맷키 쉰너, 수잔 박 등이 출연합니다. -편집자 주

**인류와 종말: 종말 직전에 이르러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고질적 죄성**



그래픽 노블과 영화 원작을 있는 TV 시리즈, <설국열차>.



<설국열차>의 열차 내부는 인류의 종말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서도 멈출 줄 모르는 계급투쟁의 현장이다.

지난주 월요일(5월 25일) TV 시리즈 <설국열차(Snowpiercer)>가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에 공개됐다. 동명의 프랑스 그래픽 노블을 영화화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2012)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영화 <설국열차>의 설정들을 그대로 가져오지만, 전체 스토리 라인에는 새로운 요소들이 많이 첨가되었다. TV 시리즈 길이에 맞게 보다 차분한 호흡의 현실적인 서사를 선보이고 있다.

영화판 <설국열차>는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쟁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열차를 움직이는 엔진, 열차 제작자 윌포드, 그리고 열차 내부를 지배하는 신분 질서, 이 세 요소를 삼위일체 하나님에 빗대 신격화하는 장면들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세속주의적 비판의식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었다.

TV 시리즈 <설국열차>는 열차와 열차의 지배자를 신격화하던 종교적 요소는 전반적으로 배제하는 대신, 열차 내부에서 계급체제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는지, 각 계급에 속한 이들이 어떻게 극한 대립과 반목을 지속하면서도 동시에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보다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래픽 노블부터 영화를 거쳐 TV 시리즈까지 <설국열차>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인류의 종말 위기이고, 둘째는 엄격한 계급질서이다. 사실 이 둘은 기독교적 인간 이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다. 전자는 요한계시록으로 대표되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후자는 원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 전반의 현실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확증하고 있다.

앞서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대한 논평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 문화에 바탕을 둔 미국의 영화와 TV 시리즈 가운데는 유독 인류 종말에 대한 서사를 선보이는 작품들이 많다. 이 작품들 속에서 종말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의 반란(<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 창궐(<나는 전설이다>, <워킹 데드>, <더 라스트 워> 등), 소행성 충돌(<아마겔돈>, <딥 임팩트> 등), 그리고 환경파괴와 급격한 기후변화(<투모로우>, <인터스텔라> 등)이다.

<설국열차>의 서사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종말 시나리오의 범주에 들어간다. 종말 서사를 담은 영화나 TV 시리즈 대부분은 일단 종말의 원인을 납득되게 설명해 주고, 인류가 사라져 가는 충격적 광경을 보여준 다음, 종말 앞에 선 인간 본성을 조명하는 데 집중한다.

독일의 실존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절박한 불안이 개개인의 고유한 삶의 의미를 밝혀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미디어 콘텐츠 속에 인류 종말 서사가 등장할 경우 거의 여지없이 그 종말 앞에 선 인류의 원초적 본성, 그 영혼에 아로새겨진 고유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 폭로되는 인간 본성은 대부분의 경우 원죄의 속성을 가감없이 담아내는 저열한 욕망들이다.

일부 숭고한 영웅적 등장인물이 있어 이런 저열함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고질적인 죄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종말의 상황은 항상 인간의 죄성이 초래하는 문제들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인류와 계급: 자원이 풍족해도 여전히 할 수밖에 없는 계급투쟁**

창세기에는 아담과 여자가 원죄를 저지른 이후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운

명에 처하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사건에는 대단히 중대한 사회경제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자연적으로 충족되던 시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자원투쟁의 시대, 제로섬 경제 시대로 돌입했다는 점이다.

성경에서는 이를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창 3:17)”는 말씀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로써 인류는 자연과의 투쟁뿐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무한한 투쟁마저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영국의 경험론자 토마스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탄>(Leviathan)에서 이 기독교적 인간이해를 정치철학적으로 새롭게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여기서 자연상태의 인간은 필연적으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유명한 이론을 제시했다.

이처럼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인류의 자원투쟁이라는 것은 현실의 인류가 종말에 이르기 전까지 결코 해결되지 않을 문제로 인식된다. 이는 현 인류의 영혼에 아로새겨진 불가피한 낙인이다.

<설국열차>의 서사 전체를 주도하는 기차 내부 계급체제라는 소재는 바로 이런 인류의 본성과 현실을 직접적으로 내보여주는 장치로 작용한다.

영화 속에서 생존한 인류의 숫자는 불과 3,000명 남짓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적은 인구 사이에서도 계급제는 존재한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강화된 채로 존재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인구는 극단적으로 줄었지만, 그만큼 누릴 수 있는 자원도 한없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설국열차> 내부의 자원은 버려진 종족 취급을 받는 꼬리칸 사람들까지 먹여살릴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

차 내부 지배층은 그들이 처음에 무임승차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굶기거나 죽이기 일쑤이고, 그들 중 소수만 일꾼과 기술자로 삼아 이용할 뿐이다. 한마디로 노예로 삼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인류 전체의 정치경제 현실에 대한 단적 메타포이다. 현재 인류 전체가 가진 생산력은 전 인류를 근근히 부양할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인류 전체가 미국과 서구 선진국 국민들 수준으로 풍족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현재의 생산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세계 인구가 대략 15억명 수준(현재는 77억명)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면 인류의 인구가 실제로 현재의 생산력을 유지한 채, 15억 수준으로 줄면 계급투쟁은 사라질까? 단언컨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풍족하게 나눠 쓸 자원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더라도 지배층과 비지배층, 압제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주(主)의 자리로 높여 타인으로부터 받들어지려 하는 자기신격화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창 3:5)”, 이는 원죄로부터 발원한 죄성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자원의 소유와 분배를 통제하는 힘, 그것이 곧 권력의 본질이다. 미국 저명한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Harold D. Lasswell, 1902-1978)은 자신의 저서 <정치학>(Politics)에서 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Who gets what, when, how).”

만일 모두에게 충분한 삶의 질을 누릴 만한 자원이 분배되면 분명 계

급투쟁은 사라지거나 최소한 약화된 공산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인간 현실에서는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결국 죄된 본성에 따라 타인을 지배하고 노예화하려는 욕망에 휩싸이고, 그리하여 모든 능력과 방법을 동원해 자원을 독점하는 소수가 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지배층은 비지배층에게 결코 풍족한 자원을 분배하지 않는다. 그 래야 피지배층에 속한 이들이 지배층이 가진 자원에 의지하면서 자발적으로 굴복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이렇게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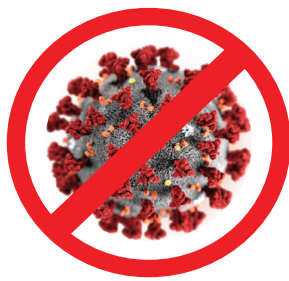
이 불평등의 사슬을 끊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일생을 바치고 피를 흘려왔건만, 인류의 역사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어떠한 정치적 혁명과 변혁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배층의 구성원과 결모습만 바꾸는 수준에 머무를 뿐이었다.

이전에 나를 숭고하게 평등과 박애 정신을 가지고 봉기한 이들도 결국 혁명에 성공해 기독교관에 편입되면 기존의 지배층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 이는 어떠한 나라든, 혹은 어떠한 단체든 간에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이다.

사실 이 계급투쟁의 지긋지긋한 사슬을 잠시라도 제대로 끊어낸 사례가 인류 역사 전체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극히 희귀할 뿐이다.

그 희귀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들이 직접 목회를 담당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이다. 사도들은 순전한 신앙만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자기신격화 욕망을 분쇄하고 온전한 자원분배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질서를 수립할 힘을 준다고 믿었고, 또 이를 실제로 실천한 바 있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VK마스크 시판**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진흙뻘에 1년간 숙성시킨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일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일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일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U.S. Patent Serial No.: 88819662

**특수 천일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셔미네랄 천일염 소금연구소 제공.  
KoshreMineralSeaSalt.com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판 매 처**

**Space Eum Cafe**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213.386.3896  
213.605.2772**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 상호관계의 원리

이사야 41:8-16



서울성온교회 목사 장재호

본문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실 때 땅 끝에서부터 불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세상 조건이나 지식, 재산의 유무나 지위나 명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이끄셨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땅 가나안으로 가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을 굳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은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 1. 상호관계의 원리: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음

상호관계라는 것은 한쪽 편에서만 상대방에게 이용가치를 기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상부상조하는 입장에서 내가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필요로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고 상호관계에 대한 기대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너는 나의 종이라”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필연적인 것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여 구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면, 나라는 존재의 남은 생애는 내 주관적인 의지에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 내시고, 희생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덧입히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애써 가꾸어서 쓰시고자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릇으로 쓰임 받는 목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강력히 나타내신 것이 “너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종(Servant)’이라는 것은 남에게 얹매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전을 위하여 섬기는 목적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중에서 이성 자율 주의적 경향 때문에 교회 안에서까지 사람의 생각이 우선시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즐겨하고 이권야심을 위한 주관적 행세를 시도하려는 폐단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2. 상호관계의 원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지령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령이가 무슨 의지가 있다면 한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상호관계의 원리를 좇아서 야곱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면서도 야곱의 원래 위치를 확인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는 잠언 16절 18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교훈입니다.

원래 우리는 땅 끝에 버려졌을 때 지령이와 같이 보잘 것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불러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호관계의 원리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본래의 처지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 따라, 여러 좋은 조건으로 갖춰지고 풍성해졌는데도 원래의 형편이 지금과 같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를 망각하고 교만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결혼을 한 부부가 처음에는 서로에게 미안한 감정으로 주고받는 말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면서 서로의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집은 그저 하숙집처럼 되어 각자의 생활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다정다감했던 부부관계는 냉담해지면서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어 생활이 편리해졌을지는 몰라도 행복이라는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관계의 원리를 서로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일 것입니다.

### 3. 상호관계의 원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쁜 습관을 고침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예전의 모습을 망각하

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비취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흠과 티를 발견하여 신속히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려고 애쓰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만족하실 성도의 인격과 자격을 갖추어가게 되는 법입니다.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과의 상호관계를 스스로 파기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0-13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호관계를 신앙 인격적 자세로 잘 받들어 감당하는 신자, 늘 쓰임받기를 소원하여 헌신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열심히 충성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인도하시고, 그를 해치는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시면서 결국, 그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상호 협동하는 인연을 계속 더 깊이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듯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상호관계의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가르쳐 훈련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함께 참여해 달라는 용도사명의 시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예수님 편에서도 뜻하신 일에 힘써 줄 수 있는 참된 성도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바로 그 요긴한 몫을 감당해 드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 성온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 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맞춤형 후드 티셔츠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 할인 이벤트

25개 \$ 19.5 (개당)  
50개 \$ 18.5 (개당)  
100개 \$ 17.5 (개당)  
**only \$15.99 (개당)**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잘 받아들인다는 것

#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이유

천하무적 세계사  
모토무라 료지 | 서수지 역  
사람과나무사이 | 324쪽

생명체는  
태어나서  
자라고  
변성하다가  
쇠퇴의 과정을  
거쳐 죽고  
소멸해간다.

역사는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 숨 쉬며  
'나침반'이 되고  
'돋보기'가 되어주는  
실용적인 학문이다.

저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제대로 된 역사지식,  
즉 '세계사 문맥력'과  
'통찰력'을 가진 자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향후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관용의 제국, 로마는 넓고 강해졌지만 탄압의 제국, 아시리아는 금세 멸망해 받아들여려면, 주어진 것을 감사해야

천하무적 세계사받아들이면 넓어진다. 외국 격언 중 ‘강물은 바다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바다는 강물을 마다하지 않는다. 어떤 물도 받아들인다. 바다가 넓을 수 있는 이유는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로마가 오랜 시간 제국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로마는 잘 받아들이는 나라였다. 로마인은 독창성이 부족한 민족이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 뛰어나다.

로마가 자랑하는 도로와 수도는 그리스인들의 기술을 훔쳐낸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속국에 관용 정책을 펼쳤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까지 받아들였다. 로마는 넓어졌고 강해졌다. 로마는 무려 1,500년 동안이나 방대한 제국을 유지했다.

반면 아시리아는 받아들일 줄 몰랐다. 아시리아는 ‘탄압의 제국’이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패배한 나라의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대규모 강제이주 정책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다.

강압적인 정책은 머지않아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졌고 기원전 612년 적국의 공격에, 아시리아 제국은 하루아침에 멸망했다. 받아들이면 넓어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좁아지고, 결국에는 사라진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 힘들다. 비교되기 때문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감사할 수 없다. 노력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흡수저나 흡수저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주어진 것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세계의 여러 나라도 주어진 것이 공평하지 않았다.

풍부한 자원과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가 있다. 반면 척박한 환경에 처한 나라도 있다. 역사는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지 않는다. 척박한 환경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주어진 환경 따라, 달라진 역사와 문명

중요로운 환경보다 척박함에서 열매가 주어진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 중요

〈천하무적 세계사〉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역사와 문명이 어떻게 달라지는 이야기한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역사는 달라졌다.

문명은 큰 강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큰 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것이다.

“4대 문명이란 기원전 5,000년~2,000년경 큰 강 유역에서 태어난 네 개의 고대 문명을 일컫는 용어다. 서아시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생겨난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프리카 대륙 동북부를 흐르는 나일강 유역에서 발생한 ‘이집트 문명’, 인도 인더스강 유역에서 태어난 ‘인더스 문명’, 동아시아 황하강 유역에서 번성한 ‘황하 문명’이 그 주인공들이다.”

그러나 물이 있다고 모두 큰 문명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고대 문명이 탄생하지 않았다. 저자는 그 이유를 물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본에서 고대 문명이 탄생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과 달리, 일본은 물이 풍부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문명의 씨앗은 풍요로운 환경이 아닌 척박한 환경에서 더 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문명이 태동하기 위해선 물과 함께 ‘건조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건조화는 물이 부족하여 건조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대규모 건조화가 진행된다면, 사람들은 물가로 몰려들었다. 물가에 모인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탄생시켰다.

“‘건조화’와 ‘물 부족’이라는 위기 속에 인간들은 좀 더 영리해지고 유능해졌다.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마침내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물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크고 작은 마을이 만들어지고 그 마을들이 통합되며 차츰 도시라고 부를 만한 규모로 성장했다.”

역사가 아널드 토인비는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주어진 것 이상으로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문명의 시작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이었다.

저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문명이 태동하지 못한 이유를 말에서 찾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은 말이 없었기 때문에 문명이 시작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문명이 태동하지 못한 이유는 말이 멸종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인간이 지나치게 잡아먹는 바람에 어느 시점에 말이 멸종했다.”

말(馬) 없어 문명 못 낳았던 아메리카가 지금은 세계의 중심... 받아들였기 때문 과거는 현재와 연결되고 현재는 미래로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자와 사람, 정보가 활발히 이동하고 흘러야 하는데 말이 사라지면 그것들이 더디게 흐르고 제대로 확산되지 못한다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만약 말이 없었다면 21세기는 아직 고대를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 없었다. 그 결과 문명이 탄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주어진 것은 척박했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이후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저자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역사가 현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역사는 멈추지 않는 영화와 같다. 과거는 현재와 연결되고 현재는 미래로 나아간다.

“역사는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내일이 있다. 뿌리 없이 즐기기도 않고 꽃도 열매도 꿈꿀 수 없듯 지난 시간, 과거라는 뿌리 없이 현재라는 즐기기도 내일이라는 꽃도 기대하기 어렵다.

역사는 실용적인 학문 정도가 아니라 삶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

주어진 것에 따라 역사의 시작이 달랐다. 그러나 세계사는 주어진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역사의 방향이 달라졌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 있는 것에 감사한다 하나님, 척박한 땅 선택 아브라함에게 약속 보고싶은 것만 보면, 역사에서 못배운다

우리도 가진 것은 다르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한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롯은 늘어나는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 헤어져야 할 시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한다.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척박한 땅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되었다. 인간이 역사를 통해 배우기 어려운 이유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다. 많이 가진 자가 항상 승리하지 않았다. 역사는 적게 가져도 주어진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인공의 자릴 넘겨주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마 25:21)”. 적게 가졌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잘 받아들이면 더 많이 주신다. 잘 받아들이면 넓어진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고대 로마 시대 시리아 아파메아 유적. ©픽사베이

미국 정착의 지름길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 지금 인터넷으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향후 10년간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교통, 교육 등에 배분하는  
지침이 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어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으로 센서스 인구조사를 작성**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드세요.

지금 인터넷

**2020CENSUS.GOV/ko** 에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